

세계중요농업유산 담양대나무밭, 해외에 알린다

농림부, 농업문화·관광자원 영상으로 담아 세계에 홍보 히스토리 채널 통해 한국과 일본·동남아시아 등지에 방영

세계중요농업유산인 담양대나무밭과 담양의 관광지, 먹거리를 소개하는 방송이 해외에 홍보된다.

담양군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이 제작한 아시아 19개국에 송출되는 한국 히스토리 채널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트레블 다이어리' 시리즈에 담양의 대나무밭과 관광지가 소개된다고 18일 밝혔다.

농정원은 우리의 농업문화를 해외에 소개해 한국의 전통농업기술의 우수성은 물론,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교육 및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아 동남아 등

에 홍보해 오고 있다.

방송에는 가수 권은비가 출연해 담양을 여행하며 세계중요농업유산 대나무밭인 죽녹원과 삼다리 마을을 방문하고, 농산물, 먹거리 등을 직접 체험하는 영상을 담았다.

담양대나무밭 전역은 대나무 품목으로는 세계 최초로 2020년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의해 세계중요농업유산 제 5호로 등재됐다.

방송은 히스토리 채널을 통해 한국은 11월 18일 18시 30분부터, 12월 30일까지 일본과 동남아 등 19개국에 순차적으로 소개될 예정이다.

담양=박종영기자



곡성멜론, 전국 최초 지리적 표시제 등록 브랜드 가치 상승

곡성군의 대표 특산물 '곡성멜론'이 멜론 작물로는 전국 최초로 지리적표시제 등록에 성공했다.

18일 곡성군 소통마루에서 곡성멜론 지리적 표시 등록증 전수식이 진행됐다. 이날 곡성군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지리적 표시 등록증을 전수받았다. 이로써 곡성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멜론에는 국가에서 인증한 '곡성멜론'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곡성군은 2019년부터 '곡성멜론' 지리적 표시제 등록에 도전했다. 그동안 지리적 표시를 획득하기까지는 멜론 재배의 역사와 지리적 연계성, 시설 현황, 곡성멜론의 생산과 관리 등 전반에 걸쳐 엄격한 심사와 현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마침내 최종 결실을 맺은 것이다.

곡성군은 토양의 유기물 함량이 풍부하고 일교차가 크며 일조 효율이 높은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다. 곡성군이 전반적으로 산이 둘러싸고 있는 분지형인데다 특히 곡성멜론은 섬진강을 끼고 있는 충적 평야지에서 재배되고 있다. 이러한 재배 환경 덕분에 곡성멜론은 당도가 높고 조직감이 품질이 우수하다. 실제로 유명 호텔이나 프랜차이즈에서도 곡성멜론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곡성군은 멜론 품질 향상을 위해 육묘부터 최종 선별 작업까지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고품질 멜론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곡성=양해영기자

화순군, 비자나무 군락 따라 걷는 '개천산 탐방로' 개통



개천산 자락 왕복 3.8km 구간 조성 거북바위 등 볼거리

화순군이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제483호로 지정된 '개천사 비자림 탐방로'를 개통했다.

화순군은 지난 17일 화순군 향토문화유산 86호로 지정된 개천산 거북바위에서 춘양면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천산 비자림 탐방로 개통식을 열고 탐방길 걷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

나주시-서울 서초구 교류협의회와 간담회

나주시와 서울 서초구가 우호 교류, 상생 협력관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나주시는 18일 시청사 이화실에서 서울 서초구 국내·외 교류협의회(회장 함재성) 임원진과 양 도시의 우호교류 협약 체결을 위한 사전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방문단은 함재성 회장, 오윤임 수석부회장, 김수환 고문(전 서초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교류협의회 임원진과 서초구의회 안종숙 부의장, 박미정 운영위원장 등 총 9명으로 꾸러졌다.

협의회는 나주 방문은 지난 10월 21일 서초구청에서 윤병태 나주시장과 전성수 서초구청장 간담회를 통해 급물살을 탄 양 도시의 우호 교류 협약 체결을 위한 사전 논의 차 이뤄졌다.

윤 시장은 전 구청장에게 관광·문화, 기업 투자유치, 농산물 판촉·홍보 등 다양한 분야

교류 활성화를 위한 양 도시 협약을 제안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나주 남평 출신인 함재성 회장의 적극적인 제안에 힘입어 협약을 약정하는 자리로 마련돼 양 도시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첫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윤병태 시장은 "나주는 2천년을 거슬러온 오래된 역사도시이자 혁신도시 조성,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개교를 통한 미래 에너지산업 선도 도시로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도시"라며 "전라도의 중심, 나주의 매력과 새로운 변화를 느끼고 양 도시가 보유한 장점을 연계해 공동발전과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윤 시장은 그러면서 방문단에 나주가 전통색인 천연염색 스퀘드, 넥타이를 기념품으로 증정하기도 했다.

나주=송준표기자

구례군, 2022 대한민국소셜미디어대상 수상

구례군이 11월 18일 한국언론진흥재단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5회 대한민국소통어워드에서 대한민국소셜미디어대상 기초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15번째를 맞는 대한민국소통어워드는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소통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시상식이다. 인터넷소통지수(ICSI), 소셜소통지수(SCSI), 콘텐츠경쟁력지수(CQI)를 근간으로 정량적 데이터와 정성적 고객 VOC와 고객FGI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수상기관을 선정한다.

구례군은 이번 평가에서 콘텐츠 경쟁력과 소셜미디어 항목에 높은 평가를 받아 종합지수 82.92점, 종합등급 AAA를 받았다



으며,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블로그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유용한 소식을 전달한 것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순호 군수는 "앞으로도 다양한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더욱 활발하게 소통하며 군정을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구례=박진호기자

장성군 "내년도 유기질 비료 지원 신청하세요"

장성군이 2023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2월 8일까지 받는다. 유기질 부산물을 퇴비로 만든 유기질비료는 토양의 질을 개선하고 유기물 함량을 높여주는 친환경 비료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내년에 사용할 비료의 종류, 공급 시기, 공급 업체, 물량을 신청서에 적어 농지가 있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되는 비료는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질합비료 3종과 부숙유기질 비료 2종이다. 포당 1600원이 지원되며, 부숙유기질비료는 1300~1600원 사이에서 차등 지급된다.

장성 농업인이 지역 가족퇴비를 구입하면 국비와 군비, 농협 지원까지 3중으로 받을 수 있다. 20kg 기준 지원 금액이 최대 2000원까지 오르게 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농가 경영부담을 낮추고 농산물 품질과 수확량을 높이고자 한다"며 "농업발전을 위한 적극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기동취재본부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 SPS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엔텍

포스코건설

포스코O&M

포스코케미칼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에너지

포스코티미날

포스코ICT

포스코A&C

포스코광판